맛·향 뛰어난 고흥 물김 본격 출하

2020년산 고흥 물김 출하가 본격화 됐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흥산 물김은 올해 양식어장 1만223ha의 면적에 총 10만2,230책이 설치됐다.

지난달 27일 도화면 발포 위판장에서 출하가 시작됐고, 위판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포대(120㎏ 기준)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9~10월 연이은 태풍으로 김 양식이 지연되면서 물김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지만, 올해도 3년 연속 위판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어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지난 4일 2020년산 물김 위판장 개장식이 열린 도화 구암위판장을 찾아 김 양식 어업인을 격려하고 고소득을 기원했다.

고흥산 김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 제2015-21호로 등록됐다.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고 미국과 일본 및 동남아 등에 우리군 주요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흥산 물김 출하가 본격화 됐다. /고흥군 제공

3년 연속 위판액 1,000억원 돌파 기대
지리적표시제 등록…해외 수출품목 각광

고흥군은 고흥 명품 물김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 김 냉동망 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총 11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에 총 15억5,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년산 김 생산시기 동안 김 병해 예방, 김 양식 시설 관리 및 불법시설물 단속·철거 등 행정 지원과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고흥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 '대상'
전남도 평가서 도시민 행복학교 등 호평

고흥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19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의 농정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시책 개발을 도모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 농업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강화 ▲신규 시책개발 및 실행률 등 6개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고흥군은 역점시책인 친환경농업 분야를 비롯해 축산·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정분야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높은 융자실행률을 달성했고, 친환경분야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실적(목표대비 119%)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전년 대비 28.4% 증가)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축산·방역 분야에서는 보조지원농가 사후관리점검(100%) 및 소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99%) 달성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농업·농촌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농업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고, 지역 농산업 구조 및 유통의 다각화로 고흥군 농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순천 오늘 생태경제도시발전 세미나
3E프로젝트 비전 수립

순천시는 오는 6일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생태경제도시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종합 비전 수립'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3E프로젝트'는 순천시의 교육(Education)과 생태(Ecology)의 강점을 살려 경제(Economy)를 특화시키는 혁신성장 전략으로, 이번 정책세미나는 3E프로젝트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도시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태수도의 도시브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3E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태경제 도시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미나는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생태경제도시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종합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는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하정봉 순천대 교수) ▲생태경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배정아 전남대 교수) ▲지역교육혁신, 생태교육 기반구축(정민석 전라남도 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생태도시 순천의 지속가능발전방향(이시철 경북대 교수) ▲생태경제기반도시의 미래비전 및 추진체계(김선명 순천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은 '생태경제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장 등 지역전문가 2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3E프로젝트의 종합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생태·경제 각 분야별 핵심전략을 마련해 2020년 새해는 생태경제 기반의 새로운 순천을 완성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궁시장 국제비엔날레서 그랑프리 수상

광양시는 우즈베키스탄 국제비엔날레에서 김기 광양 궁시장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고의 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제비엔날레는 전통문화예술 국제교류전으로 총 13개국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광양궁시전수교육관이 '동방의 로마, 그리고 햇살'이라는 주제로 김기 궁시장과 이수자 김철호, 양지욱의 작품들을 출품했다.

광양궁시전수교육관은 지난 11월 '동방의 로마, 그리고 햇살' 교류전을 통해 양국이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 궁시장과 김철호 전수실장은 이번 비엔날레 그랑프리 수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2019 초록우산 순천 산타원정대 출범

순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줄 '2019 초록우산 순천 산타원정대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산타원정대'는 연말 산타할아버지를 기대하는 순천 지역 소외 아동들을 위해 소원을 듣고 선물을 전달해주는 행사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우산과 순천어린이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서정진 순천시의회의장, 최영철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 김용재 순천후원회장 등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 회원과 산타선물을 희망하는 순천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등 120여명이 함께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포스코 다문화부부 합동 결혼식

포스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인 프렌즈봉사단과 광양 가야 라이온스 클럽이 최근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을 열었다.

프렌즈봉사단은 광양제철소 직원 350여명으로 구성된 재능봉사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 다문화부부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합동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결혼한 네 쌍의 부부는 광양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선정한 모범 다문화가정으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5쌍의 부부가 프렌즈봉사단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프렌즈봉사단은 단원들의 후원금과 포스코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기부해 를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을 활용해 예식장 대관, 예복 대여, 웨딩 사진, 피로연 등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또 가야 라이온스클럽 합창단에서는 성악으로 축가를 준비했으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공연단 10여명이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밝은 분위기의 노래로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축하했다.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은 광양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정 여름추억만들기 행사, 한국 전통문화 체험, 다문화 가정 어울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과 가야 라이온스 클럽이 최근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을 열었다. /포스코 제공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곡성군은 최근 기차마을 전통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안전사고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농업인 재활센터 이용자와 혈관튼튼교실 참여자 60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내 혈압, 내 혈당 알기'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재활센터를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구례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구례경찰서는 5일 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경찰, 기관단체, 협력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시연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운전 홍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엘로카드 등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임재 서장은 "스쿨존 내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캠페인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고흥군은 최근 하나웨딩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협의체 위원, 읍면장,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도양읍, 도화면 민간위원장을 선정해 고흥군수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송귀근 군수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내고, 보살펴 따뜻한 고흥 만들기에 힘써준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